

연중 제 32 주일

제1독서 : 지혜 6, 12-16

제2독서 : 데살 I 4, 13-18

복 음 : 마태 25, 1-13

이 주일의 화답송

주 저의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순정이

강론

등불과 기름

한 정 현 신부/광주 가톨릭 대학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 당일 풍속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재구성해 볼 수 있다. 혼인예식이 신랑 집에서 거행되기에 앞서 먼저 신부 집에서 한차례 축하잔치가 벌어진다. 그런다음 신부를 데리러 저녁 늦게 신랑이 신부 집에 나타난다. 하지만 신부의 친척들에게 줄 선물에 대한 흥정이 마무리된 다음에야 비로소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신랑의 도착이 지연되는 일이 예사였다. 드디어 “신랑”이 밤늦게서야 일행과 함께 마을어귀에 도착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소리를 질러 알린다. 이와 함께 신부를 데리고 화려한 행렬에 싸여 다시금 자기 집으로 향한다. 그리하여 신랑 집에서 혼인예식이 거행되고 성대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이 혼인풍속도에 따라 오늘 복음을 해석해 보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신랑”은 종말에 갑작스레 오실 주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열 처녀들” 곧 - 여종들 - 은 것처럼 갑작스레 오실 주님을 지금이라도 당장 맞이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며, 혼인잔치는 하느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잔치를 가리킨다. 결국 주님의 갑작스런 오심과 그분의 결정적인 심판이, 오늘 복음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각각 자신들이 준비해놓은 기름에 따라 환히 밝혀든 등불과 꺼져가는 등불로써 신랑을 맞이하려 했던 일들 및 그로 인해 혼인잔치에 참석하거나 끝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던 사건들에 비유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 안에서 꺼뜨리지 말고 타오르게 해야 하는 등불 및 미리 준비해야 하는 그 기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끊임없이 각자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고 쇠신해야 하는 일을 상징한다.

소리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자수하였다고 온나라가 떠들석하다. 88년 12월부터 당시 민청련 김근태 의장 고문 사건으로 전국에 수배돼 검찰과 경찰 연인원 300만명이 살살이 찾아 나섰는데도 그를 잡지 못하였다. 무려 십 년하고도 열달 동안을.

이근안은 관절뽑기, 통닭구이, 비너뽑기, 전기고문 등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던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고문 기술을 총동원하여 반독재민주화 운동가들을 무덤이나 병원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반독재민주화 운동을 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멸절한 사람을 죽도록 두들겨 패거나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물을 먹이거나 전선을 연결하여 사람을 반쯤 죽여 놓아 결국 죽음이나 폐인으로 몰고 가는 고문을 상부 지시 없이 경감에 불과한 이근안이 독자적으로 행하였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 천지에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수인에 불과한 이근안의 죄가 없거나 가볍다거나 하는 뜻은 조금도 아니다. 이근안은 이근안대로 엄벌에 처하되 누가 시켰는가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고문과 공작으로 18년간이나 철권정치를 휘두른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을 국민의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형제를 원수로 여기라고 강요하는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상황에서, 공소 시효 지난 고문 기술자가 자수하였다고 고문이 근절되고 인권이 향상될까. [인]

순정이 산책



신앙인의 양심을 억누르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 숲정이 지면(1999. 10. 24. 2면)에서 국가보안법이 반공을 이상화하고 증오를 부추기는 악법임이 분명하게 되었다. 그래도 혹자는 이렇게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이 악법임에는 분명하지만,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순교자들이 악법도 법이라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 법을 지켰다면 순교의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서양 오랑캐들이 들어온 샅된 가르침을 신봉하지 말라!"는 국법과 왕명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께 순종하다가 귀한 목숨까지 바쳤다. 사실 실정법과 양심법이 대립될 경우, 실정법을 무시하고 양심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교회는 항상 가르친다.

얼마 전 어떤 고위관리가 '국가보안법 때문에 도대체 불편한 국민이 있느냐?' 하고 반문한 적이 있다. 이런 당돌한 질문에 우리 신앙인은 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괴롭다고 말하고 싶다. 그것이 괴로운 이유는 보안법이 우리 신앙인의 양심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적으로 여기고 또 증오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보안법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면서, 전세계가 합법적 국가로 인정하는 조선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여 북한과의 모든 접촉과 교류를 범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이웃을 네몸같이 사랑하라"(마르 12, 31)는 말씀은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마태 6, 44 참조)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보안법은 원수를 형제로 여기고 사랑하려는 신앙인의 양심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괴롭고도 부담스러운 법이다.

우리 신앙인은 모두 예수님에게서 용서의 위대

함을 익히 배웠다. 사실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 두터운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인간의 굳은 마음까지 녹아 내리게 되었다. 때문에 신앙인은 용서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교회는 남과 북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이렇게 고백한 바 있다. "평화는 용서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용서와 사랑만이 평화의 강을 이루어 놓는다"(1994. 6. 26,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 성명서). 그러나 보안법은 신앙인의 이런 양심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다. 북한사회를 증오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보다도 신앙인의 양심을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보안법으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이 유린당하고 있으면 우리 신앙인의 양심은 상당히 괴롭다.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마태 25, 44)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만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일찍이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국가보안법의 무차별적인 적용과 처단으로 국사범에 대한 인식에 혼동을 가져오게 하고 관제 공산주의자가 생기는(1982년 인권주일 담화문)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 이 법은 한번, 아니 열번 개정해도 법이 아니라 신앙인의 양심을 억누르는 폭력일 뿐이다. 보안법 완전 폐지운동은 민족의 "은총과 구원"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운동이다.

토탈 패션

I M A+

영계주얼, 보세의류 전문 패션물

김 문 식(베드로)

심 점 순(데레사)

객사뒤 K.F.C 앞

☎ (0652) 231-7853

임실 동충하초 연구소

항종양 면역증강

허약체질 개선, 노화방지, 만성피로

암환자, 천식, 결핵, 황달, 당뇨, 고혈압

소장 김 형 권(필립보)

☎ 임실 (0673) 644-7334~5

전주 (0652) 213-4131~2

성가정 식품

전통고추장, 된장, 간장

각종 장아찌류 판매

김 만 중(비아달)

이 점 순(베닐다)

순창군 읍, 민속마을 265-22

☎ (0674) 653-3382 FAX 653-3398

휴 011-674-3382

대한상사

주택중개측 보수, 페인트 공사 전문

특수방수, 보일러설비, 샷수 도배

김 익 화(요셉)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62-39

☎ (0652) 252-4874, 0652) 277-6522

호 출: 012-684-2658

핸드폰: 011-680-4874

궁금해요

사도신경에 보면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라는 내용이 있는데
화장한 사람의 육신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말씀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갈라졌던 영혼과 육신은 부활을 통해서 다시 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한 육신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육신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의 처참한 모습이 아닌 빛에 싸인 영광스런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삶과는 다른 현존 양식을 지니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영혼과 육신이 결합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랜 병고에 시달리거나 사고 등으로 흉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후의 영혼과 육신의 부활을 믿는 우리 신앙인 들은 요즘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묘지장례보다는 화장을 하여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도 사회에 선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구·제 단체 소식

1. 주교좌성당 보수를 위한 먹거리 잔치 : 11월 6일(토)~8일(월), 중앙성당
2.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피정 : 11월 9일(화) 오전 10시, 성요셉양로원
3. 수녀연합회 11월 정기모임 : 11월 9일(화) 오전 10시, 숨정이 성당
강사 - 이완영수녀, 주제 -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
4. 가톨릭 장애인 예술제 : 11월 7일(주일) 오후 4시, 윤호관
주관 - 교구 사회사목국
5. 가톨릭 약우회 월모임 : 11월 9일(화), 평화동 성당
6. 푸른군대 일일피정 : 11월 11일(목) 오전 10시, 덕진성당
7. 레지오교본 교리 경시대회 : 11월 13일(토) 전동성당
8. 예비 신학생 방문 : 11월 14일(주일), 광주 가톨릭대학
9. 기억할 사제 : 11월 9일 김반석(베네딕도) 신부 9주기
10. 천호피정의 집 피정 : 11월 16일(화), 주제 - 하느님을 찾아서
지도 - 김정수 신부
11. 수류성당 전화번호변경 : 사무실(0658) 544-5652(FAX겸용), 수녀원 544-5654
12. 신대인 성당 FAX번호 : (0681) 571-8208

대희년맞이 '99 전주교구 추수감사제와 도·농 한마당 잔치

- 일시 : 11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전동성당
- 순서 : 1부 - 추수감사미사, 주례 및 강론 이병호 주교님
2부 - 기념식(도·농 이야기 마당) 3부 - 도·농 한마당 잔치
- ※ 농민 형제들이 봉헌한 우리농산물로 정성껏 마련한 점심등 맛있는 먹거리 잔치와 가톨릭 농민 형제들이 직접 생산한 우리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쌀, 잡곡, 채소, 과일, 양념류, 가공식품, 한우고기 등)

전북대학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 일시 : 9일(화)~12일(금) ■ 장소 : 지하 세미나실 오후 2시~4시, 1차면담
- 대상 : 1.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싶으신 분
2. 사회복지 봉사자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
(자원봉사자, 호스피스봉사자, 간병사)
3. 면담후 본당신부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분
- 문의 : 전북대학병원원목실 - (0652)250-1336, 이비비나 수녀(018-620-1336)

동서로 삼익피아노

피아노, 전자오르간, 전자악기 전문
종합악기 판매장, 전자오르간 수리
김 태 우(알프스)
황 진 숙(안젤라)
동서관통로 다가고 입구
☎ (0652) 288-7717-8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 C-T촬영 · 일반X-선 촬영
골다공증 측정 · 전신초음파 촬영
유방촬영 · 성인병검진 · 자동저적성검사
박 인 숙(아나디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0652) 278-1212-3

세 광 당

금, 은, 보석, 시계
결혼예물 특별우대(상담환영)
김 윤 중(베드로)
박 명 자(마리아)
코아백화점내 1층
☎ (0652) 288-0058/285-3061

곶솔라따 선교

수도회 성소모임

일시 : 11월 14일(주일)
(매월 둘째 주일 오전 10시)
장소 : 부천 역곡 본원
문의 : (032)345-9907
비고 : 성소 모임 및 성소 식별

요심이 (1370) 김병오

교위공직자 직계비속
병역신고내용



군부대에게서
확인해보자



저군인은
서민의아들..



교위총
아들이군.. 의병제대다



성 소 모 임

부산 성 베네딕도 수녀회

일시 : 11월 14일(주일) 오후 2시
장소 : 호성동 성당 수녀원
문의 : 호성동(0652)244-0094
광안리 본당(051)753-1131-4

예수회 성소모임

일시 : 11월 13일(토) 오후 5시
장소 : 서강대학교 K관 뒷편
대상 : 대학 재학이상 남자
문의 : 김영석 수사(02)719-1803

■ 김·정·고·부 지구 본당소식 ■

고 창 주임신부 563-2552 사 무 실 564-2044 주임신부 김 기 수
유 치 원 564-3529 수 녀 원 564-6585 사목회장 정 길 진

- ◎ 11월은 위령성월: 조상님들, 친지, 연육영혼들을 위해 미사봉헌과 위령의 기도 바칩시다 ◎ 오늘은 연중 제32주일:
- ① 위 아랫사람 서로 존경하고 경어 사용하기
② 연육영혼들을 위해 위령의 기도 바치기
1. 모임: ① 성심회 - 오늘 공식미사 후 ② 구역장회 - 9일(화) 전 10시 ③ 반석회 - 12일(금) 후 8시 ④ 성모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평신도 주일: 다음주 2차헌금 있음
3. 수능 수험생을 위한 미사: 16일(화) 후 7시 30분
4. 셋빛유치원 원아모집: 원서교부 - 18일(목)~19일(금) 접수 - 20일(토)
5. 예비신자 교리: ① 신부님반 - 매주 화요일 후 8시
② 수녀님반 - 매주 일 전 9시
6. 김장용 것갈 판매: 자모회(새우젓, 멸치액젓 각 1만 6천원)
7. 금주 전례: 은희대, 정순복
- 지난주 봉헌금: 595,200원 □ 교무금: 1,230,000원

부 안 주임신부 584-1331 사 무 실 584-1333 주임신부 이 완 제
유 치 원 584-1004 수 녀 원 584-1332 사목회장 조 건 규
F A X 581-1334

1. 새신자 소개: 전입신자, 예비신자(중심미사 중)
2. 추수감사미사: 오늘 중심미사 중, 중식제공
3. 본당신부님 휴가: 8일(월)~12일(금)
* 신부님 휴가기간중(수, 금) - 말씀의 전례
4. 본당 수녀님 휴가: 8일(월)~17일(수)
5. 가정방문일정 안내: 18일(목) - 행정구역, 19일(금) - 상서구역, 23일(화) - 궁안, 역리반, 24일(수) - 대초반, 25일(목) - 동진구역
6. 성서피정: 13일(월)~15일(수) * 본당에서 있음
7. 성가대원 모집: 관심 있으신 분은 성가대로 오세요
8. 본당미사참석: 금주 - 전제공소, 차주 - 청호
9. 금주 청소: 6구역 * 관심 가져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1,001,100원 □ 교무금: 1,055,000원

수 류 주임신부 544-5653 사 무 실 544-5652 주임신부 최 종 수
F A X 543-0177 수 녀 원 544-5654 사목회장 김 한 규

- ◎ 본당 전화번호 변경: 사제관 - 544-5653, 수녀원 - 544-5654
사무실 - 544-5652
1. 금주 전례: 해설 - 반영복, 독서 - 정준환, 이금자
2. 차주 전례: 해설 - 박철석, 독서 - 김승학, 정재덕
3. 금주 모임: ① 사목회 - 6일(토) 8시
② 성모회 - 공식미사 후
4. 차주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2차헌금이 있음
5. 감사합니다: ① 건전성사 준비에 수고하신 모든 분께
② 본당 성지순례에 수고하신 모든 분께
6. 성당 청소: 천사들의 모후 Pr.

□ 지난주 봉헌금: 382,730원 □ 교무금: 315,000원

시 기 동 주임신부 532-3282 사 무 실 535-2169 주임신부 양 석 현
유 치 원 532-5777 수 녀 원 533-9219 사목회장 손 주 표
F A X 535-2169

- ◎ 서학동 중앙성당돌기 2차헌금 있습니다
1. 가정방문 안내: 10일(수) - 강서구역 1, 2, 3번
11일(목) - 강서구역 4, 5번, 12일(금) - 강서구역 6, 7번
2. 축! 홈배: 7일(주일) 12시 30분, 신랑 - 임철호(안드레아), 신부 - 정장미 3. 성서공부시간안내: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중, 매주 금요일 어머니 미사중 4. 울드레아: 14일(주일) 공식미사 후, 강당
5. 금주 전례: (토) 해설 - 박금희, (주일) 해설 - 전영자, 독서 - 김석철, 김경희 6. 차주 전례: (토) 해설 - 최희선 (주일) 해설 - 배상정, 독서 - 이재진, 권해정
7. 금주 모임: ① 반장모임, 성모회 - 7일(주일)
② 돈보스코회, 모니카회, 청년회 - 13일(토)
8. 차주 모임: 아오스당회
9. 금주 청소: 월 - 천상의 모후, 토 - 천주 성모
- 지난주 봉헌금: 1,092,300원 □ 교무금: 2,152,000원

원 평 주임신부 543-0880 사 무 실 543-0881 주임신부 김 의 철
유 치 원 543-4236 수 녀 원 545-2843 사목회장 김 남 기

1. 오늘은 연중 제32주일
2. 봉성체: 11일(목) * 수녀님께 신청
3. 금주 모임: 푸리아
4. 금주 전례: 해설 - 강단규, 독서 - 손영진, 안금순
봉헌 - 김중섭 가정
5. 차주 전례: 해설 - 송영환, 독서 - 박금택, 이영자
봉헌 - 김연희 가정
6. 성전지봉보수 공사비 봉헌하신 분 감사: 권영배, 김훈배, 이만춘, 최석기
7. 성당 청소: 봉남구역
8. 교무금, 성전지봉 보수헌금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61,000원 □ 교무금: 250,000원

신태인 주임신부 571-8202 사 무 실 571-8201 주임신부 전 종 복
F A X 571-8208 수 녀 원 571-8203 사목회장 오 영 화

-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 ◎ 오영화(바오로)사목회장님의 연임과 오지순(리처드) 김영석(토마스)님의 사목회 감사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 ◎ 애령회비 납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금주 미사참석: 동막, 신기
2. 차주 미사참석: 능교, 용암, 화봉, 진흥
3. 금주 공소미사: 종산(토) 4. 차주 공소미사: 옥단(토), 태인(주일)
5. 금주 모임: 화생회, 성심회, 푸리아, 성모회(금)
6. 차주 모임: 자모회, 안나회, 울드레아
7. 금주 전례: 해설 - 고점순, 독서 - 허 권, 박정숙
봉헌 - 오지순, 고연님
8. 차주 전례: 해설 - 박찬주, 독서 - 김병익, 주진희
봉헌 - 신동호, 박영자

□ 지난주 봉헌금: 369,200원 □ 교무금: 1,522,000원

신 풍 주임신부 544-2272 사 무 실 544-2271 주임신부 박 종 중
F A X 544-2271 수 녀 원 544-2273 사목회장 김 태 술

- ◎ 본당자체 바자회를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1. 금주 모임: 성모회, 청년회, 요셉회, 사목회(9일(화) - 후 8시)
2. 차주 모임: 자모회, 프란치스코 삼회
3. 공소미사: 용지(8시), 차주 - 백자, 신암
4. 본당미사 집례공소: 신암, 차주 - 와룡
5. 병자 봉성체: 12일(금)
6. 금주 전례: 해설 - 함정숙, 김소양, 독서 - 허성욱, 김영순
봉사 - 성소들의 모후 Pr.
7. 차주 전례: 해설 - 백강석, 김진숙, 독서 - 장현중, 최옥희
봉사 - 신비로운 장미 Pr.
8. 성당 청소: 7, 13, 14, 15, 16구역, 차주 - 1, 2, 3, 4구역

□ 지난주 봉헌금: 417,000원 □ 교무금: 150,000원

연지동 주임신부 533-0044 사 무 실 533-0898 주임신부 김 요 안
F A X 533-0045 수 녀 원 533-2578 사목회장 고 광 진

-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억하고 영원한 안식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1. 오늘의 모임: 아브라함회
2. 성체강복: 11일(목)
3. 병자봉성체: 12일(금)
4. 축! 혼인: 14일(주일) 전 12시 30분
신랑 - 조영식(바오로), 신부 - 강윤정
*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 차주 모임: 성심회, 성체회
6. 본당 연도대회: 16일(화) 저녁미사 후
7. 11월 성당 청소: 순교자의 모후 Pr. 인자하신 모후 Pr.
* 수고하시겠습니까

□ 지난주 봉헌금: 1,013,400원 □ 교무금: 743,000원

요 촌 주임신부 544-0152 사 무 실 544-0151 주임신부 김 환 철
유 치 원 546-3788 수 녀 원 544-0153 사목회장 김 치 덕

- ◎ 나바위 전신자 성지순례에 수고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 ◎ 2000년 기년 영세 한세대 1명 이상 선교합니다
- ◎ 2000년 맞이 100일기도 앞으로 55일

1. 2000년 대회년 맞이 목주기도 1억단 봉헌: 31일 현재 총 333,040단
2. 2000년 대회년맞이 기념사업헌금신청: 사무실
신립 - 41세대 10,800,000원, 남입 - 3,800,000원
3. 모임: ① 요셉회, 99회 - 공식미사 후 ② 사목회 - 9일(화)
③ 숲정교회 - 10일(수) ④ 성모회 - 12일(금)
⑤ 자모회, 청년회 - 13일(토)
4. 사제양성후원회비 납부의 날: 오늘
5. 성당 청소: 모든 성인의 모후
6. 차주 모임: 재속삼회

□ 지난주 봉헌금: 1,207,800원 □ 교무금: 505,000원

줄 포 주임신부 581-0242 사 무 실 581-0241 주임신부 서 정 현
F A X 581-0241 사목회장 박 경 우

- ◎ 오늘은 만남 주일로서 식사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사는 정식수(마티아)신부님께서 주례해 주십니다

- * 1. 금주 모임: ① 구역 레지오 회합에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② 복사단 소풍 - 오늘
2. 차주 모임: 사목회 - 14일(주일) 미사 후, 사제관 회합실
3. 금주 가정방문: 신복 공소, 금요일 후 7시 30분부터
4. 사목회 각 분과장님들께서는 다음 주까지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87,000원 □ 교무금: 615,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에게 숲정이를 보냅니다.